

안전의식 개혁을 통해 세계화를 꿈꾸는 기업

-도레이새한(주)제1공장-

2002년도는 우리 기억 속에 길이길이 남을 년도로 자리잡고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축구 응원 브랜드는 우리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조차 쉽게 지워지지 않을 함성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함성도 시간 속에 묻히고 한해를 되 돌아보며 새로운 희망을 계획해야 할 마지막 2002년 한달이 남았다.

지난 1년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12월 한달이 중요하다. 그래서 올 한해를 결산하는데 있어 어느 기업을 찾아가야 할지 고민 끝에 안전을 밑거름으로 세계 속에 경쟁을 갖춘 기업이 있어 찾았다.

21세기를 향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기업,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무재해 속에서 생산성의 극대화와 세계화를 추구하는 도레이새한(주)제1공장(김성대 공장장)이 오늘 찾은 곳이다.

경북 구미시 임수동에 위치한 도레이새한(주)는 민간차원에서 대규모 일본자본의 유치로 국내 화섬 업

계 사상 최대의 외자유치 규모와 함께, 화섬업계의 성공적인 구조조정이라는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한 이 곳은 1999년 12월 1일부터 기업활동을 시작하여 짧은 시간에 필름사업 세계 2위, 부직포 사업 세계 1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어 세계의 화섬업계를 또 한번 놀라게 하기도 하였다.



▲ 김성대 공장장

주로 폴리에스터칩, 원사, 베이스필름, 부직포, PET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안전, 환경, 품질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면서 2001년도에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되는 등 많은 상을 수상하였고, 2002년도에는 “대한민국 에너지 지속상 동탑훈장 수상”과 “품질경영상 수상”, “전국 노사관계 우

수사업장 수상” 등으로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까지도 이목을 집중시켰다.

인간을 배려한 설비의 설계에서부터 안전이 최고

도레이새한(주)는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에서 생산성 극대화를 이룩한 사례가 있다.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산업사회에 보여준 것이다.

이에 김성대 공장장은 “제조업에서의 안전이란 프

집중안전 포커

로세서 설계에서부터 안전이 따라져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자동차의 경우는 안전이 최우선시되어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작에 이르기까지 안전이 자리잡고 있는데 반해 일반 제조업에서 사용되는 프로세서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김성대 공장장의 말이다.

"인간을 배려하는데 있어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설비의 설계 단계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으므로써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판단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설비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작업자의 의견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하고, 3000여건의 개선 아이디어를 반영함으로써, 안전한 공정을 세울 수 있었는데, 그렇게 세워진 것이 "필라멘트" 공장이다.

이 곳에서는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작업자의 생산성 증대로 세계 1위의 생산성을 자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섬업계 뿐만 아니라 세계 기업(DFat 등)에서도 견학을 올 정도이다.

안전의식 개혁이 정착되어야 할 때

안전은 기계적인 안전과 더불어 작업자의 안전의식 또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날의 우리 근로자는 자기 자신의 안전보다 경제적인 측면에 더욱 치중하다 보니 안전은 뒷전



이었다. 그러나 이곳 도레이세한(주)는 작업자의 안전의식 개혁 없이는 무재해 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안전경영 방침에 반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의식 개혁을 위해 힘썼다. 그 결과 최근 자체적으로 "사업장

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가"라는 설문조사에서 안전·환경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 것은 안전마인드가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기현 환경안전팀장은 작업자들의 안전마인드가 확실히 자리 잡기 위해서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의식 개혁을 위한 안전활동을 많이 한다.

발차취 남기기 운동, 작업도구개발 경진대회, 안전 Quiz 경진대회, 안전 Bat 설정, 안전경진대회 등이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시작되고 있는 안전활동들이다.

아마 어느 기업보다 안전활동 Bat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해 매진

도레이세한(주)에서의 안전의식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기업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가려면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

이 김기현 환경안전팀장의 말이다.

그래서 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해 꾸준한 벤치마킹을 통한 안전활동 개발과 도레이새한(주)에 맞는 안전활동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그중 미국 Dfpt사의 SIOP기법은 지난해에 전 임직원 등 관리자급이 교육을 받았고, 2005년까지 근로자들에게도 교육을 이수케 하여 사업장에 SIOP이라는 안전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밖에 주입식 안전교육을 탈피하여 체험을 통한 교육과 분임 토의식 교육, 소그룹 안전활동 등은 현 문체점을 도출하여 수정 조치함으로써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으며, 기존의 안전환경 위험작업에 대한 허가제를 수정보완하여 도레이새한(주)만의 3중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제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공간작업에 대한 관리는 특별한데 작업 해야 할 설비에 대해서는 측정기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항상 2대 이상의 측정기로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요구되는 측정치가 되었을 때, 에어로 퍼즐하는 등 안전한 작업을 위한 조치를 작업 하루전에 완비한 후 그다음 날 2인이 1팀이 되어 구멍로프 등의 안전보호구를 착용한 뒤 작업에 들어간다.

이로서 도레이새한(주) 출범 이래 공간작업으로 인한 재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앞으로 OSHAS 18001 인증 획득, 위험성 평가 등 모든 관리를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도레이새한(주)은 2003년에도 안전이 기업경쟁력을 키우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업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기자최종덕〉

